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및 탈세 관련

(2014. 1. 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미 국방부,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으로 2006~2007년 간 566억원 취득
- 2002~2013년 간 이자소득 3천억원 넘을 듯
- 이자소득세(12%) 최소 360억원 탈세 추정

1. 사전 설명

- 주한미군사령부가 2002년부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위해 불법 축적해 옴.(2012년 9월말 현재 7,611억원, 2013년 3월말 현재 7,380억원)
- 주한미군 영내 커뮤니티뱅크('뱅크 오브 아메리카 군사금융 부문'이 미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미군 영내 은행)는 이 자금을 자매회사격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 등에 양도성예금(NCD) 등으로 맡김.
-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은 이 자금을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커뮤니티 뱅크에 이자소득을 안김.
- 커뮤니티뱅크는 이 이자소득을 미 국방부에 송금함.
-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 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 확인했다고 밝힘.(07.6.13, 08.10.24, 08.11.3, 13.5.31)

2. 사안의 전개과정

- 신동아 2007. 4월호, 2007. 5월호, 2008년 2월호, 황일도 기자,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문제 기사화
- 2007. 4월, 평통사,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 신고서 제출
- 2008. 12, 서울지방국세청, 커뮤니티 뱅크가 미국의 (준)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비과세 통지.
- 2009. 2. 23, 평통사, 민변과 함께 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2009. 2. 24, 평통사,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이자소득 및 탈세에 대해 문제제기
- 2010. 11. 5, 국가배상청구 1심 패소
- 2011. 6. 1, 국가배상청구 2심 패소(종결)
- 2013. 심재권, 진성준 의원 등 이자소득 및 탈세에 대한 문제제기

3. 현재 상황

- 국방부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2002년부터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축적 잔액 내역 확인.
- 2013. 10. 1, 심재권 의원, 평통사가 제공한 서울지방국세청 답변 자료 근거로 ‘방위비분담금 축적금에서 이자발생’ 주장.
- 2013. 10. 2, 심재권 의원, 미국 법도 방위비분담금 이자발생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

4. 새로운 사실

- 평통사는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서울지점으로부터 커뮤니티 뱅크와의 금융거래 정보를 확보
- 커뮤니티 뱅크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사이의 거래 과정에서 2006년도 약 204억원, 2007년도 약 360억원의 이자발생 내역 확인
- 미국 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확인.
-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 자료)

5. BOA 서울지점 - 커뮤니티 뱅크 간 거래 내역

- 2006년 예치금액 단순 합산 : 1조7750억원
- 2007년 예치금액 단순 합산 : 2조5050억원
- 이 중 NCD 만기일과 차기 거래개시일이 일치하고, 이전과 이후 거래금액이 동일한 경우가 다수 확인됨.

<사례1>

연도	거래개시일	상품명	예치금액	이율	만기	이자금액
2006	01/06/2006	NCD	750억원	3.6871390%	03/14/2006	465,020,547
2006	03/14/2006	NCD	750억원	4.1430940%	09/11/2006	1,573,212,328
2006	09/11/2006	NCD	750억원	4.3028220%	09/11/2006	822,328,767

<사례2>

연도	거래개시일	상품명	예치금액	이율	만기	이자금액
2006	04/11/2006	NCD	600억원	4.0585140%	07/11/2006	613,315,068
2006	06/23/2006	NCD	600억원	4.2054400%	09/22/2006	635,753,424
2006	09/22/2006	NCD	600억원	4.2871550%	01/23/2007	879,534,246
2007	01/23/2007	NCD	600억원	4.5896840%	05/23/2007	919,232,876

<사례3>

연도	거래개시일	상품명	예치금액	이율	만기	이자금액
2006	08/04/2006	NCD	900억원	4.3186040%	10/04/2006	654,287,671
2006	10/04/2006	NCD	900억원	4.2886660%	02/01/2007	1,287,123,287
2007	02/01/2007	NCD	900억원	4.6478750%	06/01/2007	1,396,602,739
2007	06/01/2007	NCD	900억원	4.6170290%	10/02/2007	1,422,419,178

<사례4>

- 2006년 1월 4일자 정기예금 400억원은 3월 6일 만기일과 같은 날 상품을 NCD로 바꿔 같은 액수인 400억원을 바로 예치한 것으로 추정됨.
- 이 밖에도 만기일과 같은 날에 다시 합산 또는 분산 예치되는 예금도 많음.(사례 생략)
- 이처럼 중복 예치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2006년 실제 예치금액 추정치는 약 6700억원임.
- 이 금액은 <신동아> 2007년 5월호,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양도성예금증서 형태로 예금된 방위비분담금이 2006년 4분기 현재 6500억원 안팎이라는 보도와 거의 일치함.(182쪽)
- 이에 비추어 볼 때 2006~2007년 예치금액은 방위비분담금으로 판단됨.

6. BOA 서울지점과 커뮤니티 뱅크 간의 거래 금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판단하는 근거

- 첫째, 커뮤니티 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와 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주한미군 영내은행임.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거액의 자금을 예금할 수 있는 일반 상업은행이 아님.
- 둘째, 한미양국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목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2002년부터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8년 10월 현재 1조 1193억원, 2012년 9월말 현재 7611억원, 2013년 3월말 현재 7380억원이 축적되어 있다고 국회에 보고함.
- 셋째, 국회 예산정책처는 진성준 의원의 ‘방위비분담금 관련 요청 건’ 자료에서 “군사건설비 미집행액은 원화 금액 부분은 Community Bank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달러로 환전된 부분은 이 재무부의 무이자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즉,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위해 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중 원화 부분은 커뮤니티 뱅크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임.
- 넷째, 커뮤니티뱅크와 BoA 서울지점 사이에 수천억원의 금액이 3~4개월 단위로 연쇄적으로 거래되고(이전 거래 만기일과 다음 거래 개시일이 같은 날이고, 금액도 동일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미 국방부에 송금한 사실이 BoA 서울지점 자료로 확인됨.
- 다섯째, 커뮤니티 뱅크가 취급할 수 있는 미 국방부 자금은 주한미군 인건비나 운영비가 될텐데, 인건비는 장병들에게 지급되고 운영비는 부대 운영을 위해 소모되는 경비이므로 이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없음.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축적될 수 없음. 따라서 커뮤니티뱅크가 거액을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 지급되는 군사건설비 밖에 없음.

- 여섯째, BoA 서울지점 자료의 내용이 커뮤니티뱅크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BoA 서울지점에 맡겨 이자소득을 얻어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는 <신동아> 황일도 기자의 계속된 보도 내용(2007년 4월호, 2007년 5월호 등)과 대부분 일치함. <신동아> 기사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이자소득과 탈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음.

- 이처럼 이자소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음. 2007년부터 관련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평통사의 탈세 신고로 서울지방 국세청이 조사를 했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관련 사실이 밝혀짐. 비정부 시민단체인 평통사도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7.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에서 얼마의 이자소득을 얻었나?

- 확인된 이자소득(2006~2007년) : 566억원
- 12년간 추정 이자소득(2002~2013년) : 3,396억원

<단위 : 억원>

시점	군사건설비 배정액	지원형태	군사건설비 현금지원누계	미군 축적금	이자액	비고
2002년	1,398	현금	1,398			
2003년	1,627	현금	3,025			
2004년	1,944	현금	4,969			
2005년	2,494	현금	7,463			
2006년	2,646	현금	10,109	8,000(추정) (신동아 2007. 4. 82-91쪽)	204 (BOA 자료)	
2007년	2,976	현금	13,085		362 (BOA 자료)	
2008년	2,642	현금	15,727	11,193 (국방부, 국회 보고, 2008. 10. 23 현재)		
2009년	2,922 (현금2,045)	현금70% 현물30%	17,772			8차 협정 기간 (2009~2013년) 중 현물비율을 30%(09년)→ 60%(10년)→

						88%(11년)로 상향합의, 12%는 설계감리비로 현금 지급
2010년	3,158 (현금1,667)	현금40% 현물60%	19,439	13,000(추정액) (신동아 2011. 6)		-현금액수와 현금비율에 차이가 있음
2011년	3,033 (현금827)	현금12% 현물88%	20,266			-11년부터 개시된 미군기지건설공사에 따른 비용지출로 축적금 감소
2012년	2,502 (현금432)	현금12% 현물88%	20,698	7,611 (국방부, 국회 보고, 2012. 9. 30 현재)		
2013년	2,615 (현금462)	현금12% 현물88%	21,160	7,380 (국방부, 국회 보고, 2013. 3. 말 현재)		

- 커뮤니티 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 간의 금융거래를 통한 이자소득이 2006년 204억원, 2007년 362억원으로 확인.

- 위 2개년도 평균 이자소득을 평균치로 하여 단리로 단순계산하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간의 이자소득 추정치는 3,396억원.((2006년 204억원+ 2007년 362억원)/2*12년=3,396억원.